

군포소식

Gunpo Monthly Magazine

2017

01

제35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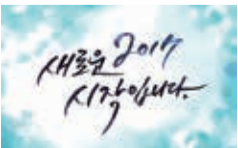


우리가 직접 만든
군포의 독립운동역사 지도,
모든 시민과 함께 보고 싶어요~

당동청소년문화의집 학생들과 한송이 지도사(맨 왼쪽)

02 행복한 군포

2017년 정유년(丁酉年) 군포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새해 군포시 주요 시정
+ 새해에는 '삶의 질 만족도 전국 1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군포시는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10 군포 삼매경

눈썰매 타고 썰썰! 얼음썰매 타고 썰썰!
초막골생태공원 눈·얼음썰매장 개장
+ 다양한 재미를 누릴 수 있는 초막골생태공원 눈·얼음썰매장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겨울 추억을 만들어 보자.



11 거리를 만나다

따뜻한 밥상 한 끼로 평생 인연 맺어요
(주)좋은터의 '엄마품 멘토링' 사업
+ 마을기업인 '(주)좋은터'가 엄마 품이 그리운 결손가정 아이들을 찾아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하는 '엄마품 멘토링' 사업을 시작했다.



16 건강속속

간편하고 든든한 아침 한 끼
우유 감자수프
+ 추운 겨울, 우유와 감자의 다양한 영양소가 고루 담겨 있는 우유 감자수프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해보자.



군포시와 SNS로 친구맺기

페이스북 facebook.com/gunpocity

블로그 blog.naver.com/o2gunpo

트위터 twitter.com/gunpocity

발행일 2017년 1월 1일

발행인 군포시장

발행처

gunpo 군포시 홍보실

TEL 031-390-0663

FAX 031-390-0069

WEB http://www.gunpo.go.kr

정기구독 신청(무료)

<군포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홍보실에 전화 신청하세요.

군포시청에서 발행한 <군포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군포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새 해 군포시 주요 시정

“어떻게 하면 군포시민이 더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을 매일하는 군포시.
새해에는 ‘삶의 질 만족도 전국 1위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리 편집실

따뜻한 배려

01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

- + 위기가정 긴급지원 추가 지원 확대 : 1개월 → 3~9개월
- + 지원내용 :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다문화·이주민 일자리 지원 강화

- + 일자리 상담실 및 공동직업장 운영 : 일자리상담, 알선, 구직 정보제공, 사후관리 등
- + 다문화 카페 '레인보우 2호점' 설치 : 청소년 전용 카페(군포로 531) 내



행복한 가족을 위한 출산장려 확대

- + 군포시의 자체 시범사업으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 +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지원(임신 전 검사부터 학령기 아동 예방접종 까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맞춤형 복지 시행

- + 군포 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 노인복지관 증축 및 환경 개선
- +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확대, 저소득 노인 보호시설 아간과 주말까지 운영 등

즐거운 배움

02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실현

- + 평생학습 역사 및 자료관 개설, 우리 동네 학습공간 '마당' 확충(3개소)
- + 행복학습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개발(5개 이상) 및 지원사업 확대 운영(10개소)



군포 책박물관 (복합도서관) 건립

- + 군포 책박물관(복합도서관) 건립 추진율 100% 목표 달성
- + 국내 최초 공립 책 박물관 조성의 전 단계로 책 테마관(창작촌) 조성(2개 동 32실)



학생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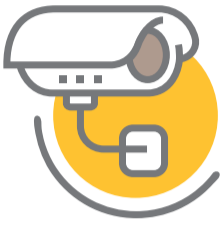
- + 학교와 관계없이 종목별로 일정 장소에 모여 스포츠클럽 형태로 운동부 운영
- + 운영은 체육회에서 맡고, 추가되는 예산은 시에서 부담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재정비

- +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시설 개소 수 확충 : 10개소 이상
- +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관리 및 지도 강화 : 연 1회 → 연 2회

03 안전·편리한 생활



시민의 생활안전보장, 안전도시 구축

-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 지킴이 CCTV 설치(10개소)
- + 생활안전용 CCTV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58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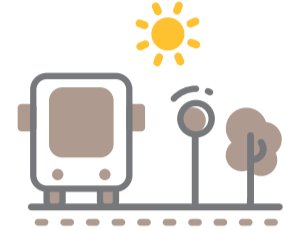
생활안전용CCTV IP비상벨 시스템 구축

- + 생활안전용CCTV(427개) 비상벨 신호수·발신체계를 인터넷전화시스템 방식으로 교체
- + 공원 내 공공화장실(20개소)에 IP비상벨시스템 적용, 위급상황 시 신속 조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 + 반월호수 주변(둔대동 500번지 일원) 지평식 254면 조성
- + 산본시장 내(산본동 251-4번지 일원) 지평식+기계식 73면 조성



버스노선체계 개편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 확산

- + 신규 수요 발생지역 대중교통망 노선 조정 및 확충
- + 대야미동 주민 대중교통 불편 해소 신규 노선 검토

04 지속가능 성장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 + 군포첨단산업단지 준공 및 처분(부곡동 522번지 일원), 2017년 12월 목표
- + 근린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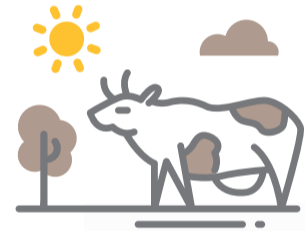
산업진흥원 건립 통한 기업 지원 강화

- + 목표 : 2016년 45% ⇒ 2017년 90%
- +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부곡동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J블록 1롯데)



전통시장(상점가)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 + 전통시장(상점가) 공동 마케팅, 홍보 등 활성화 사업비 지원
- + 무료배송센터 및 시장 매니저 등 지원해 상인 역량강화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마을 조성

- + 시민 주말체험농장 10개소 조성, 경관보전작물 재배단지(30농가) 조성
- +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학교급식 공급 등)으로 농가소득증대 제고

05 삶의 질 향상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

- + 군포시 군포로 609번안길 12(2017년 85% 건축공사 완료)
- + 주요시설 : 다목적체육관(탁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최소한의 장사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

- +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을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 지원
- + 지원비용 : 1인당 30만원(2017년 예산 : 2억5천200만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추진

- + 추진기간 : 2017. 1월 ~ 2018. 6월(관내 11개 동 전체 대상)
- + 주요내용 :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및 경계 조정(분동 및 통·폐합 등)



철쭉 네트워크 구축

- + 철쭉동산~초막골공원~수리산도립공원 연계된 철쭉둘레길 조성(4.65km)
- + 철쭉공원 앞 전철교량 하부 공한지(철도부지)에 녹지공간 조성

올 한해 군포시,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2017년도 군포시 시정운영 방향

민선 6기 3년 차를 맞이한 2016년 우리 시의 시정을 돌아보면 '초막골생태공원 완공', '철쭉공원 준공',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국민체육센터와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착공' 등 시민들과 약속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민이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의 온 역량을 집중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 군포의 도시 가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2017년 새해 군포시의 시정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품격과 전통의 군포브랜드를 완성하겠습니다.

- 2017년에도 <책박물관 건립>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책나라군포가 생활 속에 더욱 스미도록 하겠습니다.
- 철쭉동산을 중심으로 한 <철쭉길 네트워크>를 완성해 군포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과 성장이 어우러진 미래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군포산업의 미래를 지원할 <군포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수출마케팅 지원, 뿌리산업 맞춤형 육성 등 다양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 <2030 군포 도시기본계획>과 <지역단위 발전계획>의 체계적 수립·실현으로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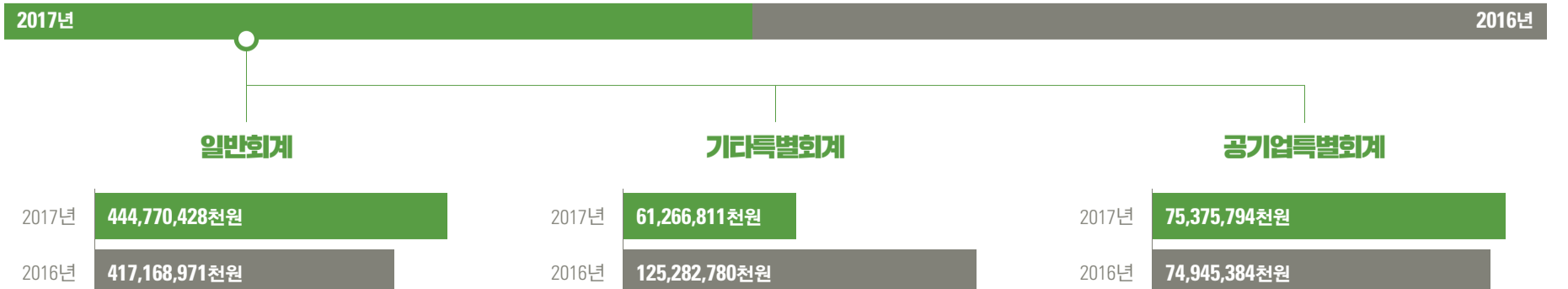
군포시 새해 재정 계획

2017년 본예산 :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2016년 대비)

581,413,033천원

본예산 합계(일반, 기타, 공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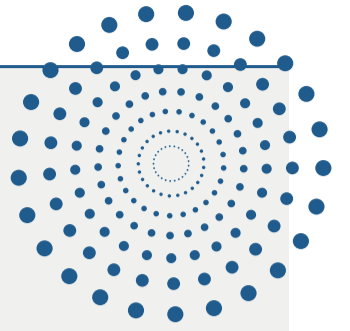
617,397,135천원





셋째, 창의적 감성으로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체험활동을 더욱 지원하고,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지혜와 감성을 가득 담은 <군포만의 특화된 교육공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공간을 더욱 확대해 배움과 나눔이 공존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 영유아 돌봄인프라 구축 등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노인복지관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가노인서비스·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등 저소득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술로 놀고, 문화로 꿈꾸는 고품격 웰빙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시민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고, 즐기면서 <문화재단과 연계한 역점사업을 추진>해 시민일상에서 문화의 즐거움과 예술의 감동을 맘껏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체육시설 일제정비, 동호회 육성·지원 활성화 등 풍부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군포국민체육센터·송죽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평생체육의 웰빙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위 내용은 2016년 12월 1일 군포시의회 제222회 정례회에서 발표한 군포시장의 '시정연설'에서 부분 발췌했습니다.



2017년 군포시 재정운용 방향

건전한 재정 운용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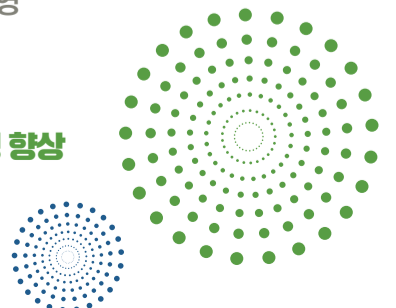
-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 시행, 평가 결과 부진 사업 예산증액 불가 또는 감액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부채까지 통합 관리)
- 주민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
- 보조금사업 성과 평가 및 부정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벌칙 부과

행사·축제 효율화 제고

-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준수, 민간 위원회를 통한 행사·축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 강화, 대규모 행사·축제 투자심사 강화
- ※ 매년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부채 0원 도시' 만들기:

부채 이자로 인한 시민 부담 경감, 재정 건전성 향상





2년 연속 지역안전등급 1등급

안전지수 7개 분야 중 1등급 5개 “군포는 더 안전해져”



군포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16년 말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 의하면 군포는 전국 75개 시(市),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안전지수 7개 분야 중 5개에서 1등급을 받은 도시다.

안전처에 의하면 군포는 화재, 교통,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해당 분야의 안전지수 점수는 전국이나 시·군·구 평균보다 높다.

7개 분야에서 안전지수 1등급을 하나도 받지 못한 시가 51곳(경기도에서는 12개 시·군)에 달하고, 1등급 분야가 3개 이상인 시는 군포를 포함해 6개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안전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안전처의 2015 지역안전지수

조사 결과에서는 4개 분야에서 1등급이었는데, 올해는 군포가 더 안전해진 것을 확인해 기쁘고 뿌듯하다”며 “시민 행복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의 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에서 군포는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오른 2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자연재해 분야는 작년보다 안전지수 점수는 올랐지만 등급은 한 단계 떨어진 4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군포에는 오랫동안 자연재해가 없어 해당 분야 투입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관련 사업도 적어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며 “역설적 평가이기는 하지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지 계속 확인·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도시과 390-0443

교차로에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 설치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 줄여



군포시가 지역 내 교차로 2곳에 지능형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을 설치해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시민의 재산도 지키고 있다.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이란 검지장비를 통해 좌회전 차량의 존재(통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 좌회전 차량이 없을 때 자동으로 직진 신호에 시간을 더 부여함으로써 신호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첨단기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초 군포경찰서와 협력해 교통량 편차가 큰 태을초교삼거리, 수리초교삼거리의 좌회전 구간에 감응신호시스템을 설치한 결과 신호주기당 직진 시간이 평균 5~10초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해당 구간의 차량 공회전 시간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감소했고, 각 차량 운전자의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는 동시에 유류비 절감도 가능

해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설치된 좌회전 검지장비가 기존의 유선 제품과 달리 무선 통신으로 작동해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설치비 역시 저렴해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무척 크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2017년에는 추가로 1~2곳의 교차로에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을 설치, 지역의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시민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승식 교통과장은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은 도로의 혼잡도를 낮추고, 도시의 환경과 시민의 경제생활에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교통과 390-0844

NEWS, 한 눈에 보는 군포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2년 연장

여성가족부가 군포시의 '가족친화인증' 기간을 2년 연장했다. 군포시는 지난 2013년 11월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이번에 재차 검증을 거쳐 인증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인증 기간 연장 심사에서 여성(임산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임용식 개최,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민 가족 나들이 행사 운영 등의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인증 기간에는 정부의 가족친화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이나 우선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 가족 화합 문화를 더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과 390-0261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등 보수 지원

군포시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이 승인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874개 동 7천 560세대의 공용시설 보수와 위험 시설 철거 등을 지원해 시민 삶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안전지수를 높인다.

시는 대상 주택단지 주민들이 2017년에 단지 내 보·차도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이나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총사업비의 최대 80% 이내)한다. 다만 위험도 높은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15년 미만 주택의 주민들도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12월 30일까지며, 상세 조건 등은 시 홈페이지(www.gunpo.go.kr)를 참조하거나 건축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건축과 390-0402

전철 1호선 금정역 광장 환경개선

군포시는 지난해 11월 말 지역 내 전철 1호선 금정역사 인근 광장에 자전거 보관대 9개, 등의자 6개, 평의자 2개 등을 설치했다. 또 총면적 1,498㎡에 달하는 보도블록 포장을 하는 등 보행자와 역사 이용객의 편의를 크게 향상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이에 더해 시는 광장 한편에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무대를 설치, 문화 지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그동안 보행에 불편함을 끼쳤던 금정역 주변 화단과 퍼걸러는 철거했고, 낡아서 사용이 불편했던 의자 12개와 자전거 보관대 8개 등도 함께 치워 쾌적함도 확보했다.

공원녹지과 390-0417

제222회 군포시의회 정례회 마쳐

정례회 15일간 업무보고, 예산결산,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처리



군포시의회(의장 이석진)는 지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222회 군포시의회 정례회를 진행했다.

2일 조례특위(위원장 이견행 부의장)에서는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그 외 12개 기타 안건은 모두 원안

대로 가결했다.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별)에서는 군포시가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58억7천677만5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2천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 반면 수도사업특별회계와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했다.

Interview

[열린 의정]



이야기를 나누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7대 군포시의회

박미숙 의원

Q. 재선 3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초선과 다른 점은?

A. 초선 때보다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의정 활동에서도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아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시야도 넓어지고 여러 시각에서 살필 수 있게 됐습니다. 초선 때는 마음은 급한데 방법을 몰라 애태우던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Q.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억나는 조례가 있나요?

A. 2015년에 <군포 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통과시켰습니다. 모유 수유를 어디에서나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포함해 거점을 정하고, 관련 시설 설치를 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성들이 수유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열악해서 수유를 포기하는 일이 군포에서는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Q. 의원생활 동안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A. 남편의 고마움을 빼놓을 수 없어요. 경찰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제가 출마를 준비하던 2009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만 주어졌지만, 남편은 출마를 포기하려던 저의 마음을 돌려세웠습니다. 그 뒤로도 수시로 용기를 북돋워 주고 격려하며 8년 동안이나 곁에서 힘이 돼주었습니다. 2016년 10월, 결국 남편은 떠났지만 힘든 의정 생활로 녹초가 될 때마다 남편을 떠올리며 힘을 얻습니다.

Q. 남은 임기 동안 꼭 해보고 싶은 일은?

A. 시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과 시청 사이의 원활한 연결통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 단신

둔전초·도장초
일일 명예교사 활동



이견행 부의장과 홍경호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둔전초와 도장초 4~5학년 학생(각 152명, 80명)을 대상으로 1일 명예교사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에 일일 명예교사로 활동한 이견행 부의장과 홍경호 의원은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의 기능 등 시의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쉽게 설명해 많은 학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알지 못했던 시의회와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견행 부의장, 성복임 의원
예산지킴이 교육 이수



이견행 부의장과 성복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주관한 ‘2016 지방의회 의원 대상 민간위탁 교육과정’에 참석해 전문 교육을 받았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서 두 의원은 합리적인 민간위탁 관리·감독 방안, 지방자치단체 예산지킴이로서의 지방의회 역할을 배성기 강사(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로부터 3시간의 강의를 통해 상세하게 배웠다.

교육 이수 후 이견행 부의장은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투입되는 군포시 예산, 시민의 세금이 감독 소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의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회사무과 390-8713



군포의 독립운동역사 지도,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우리동네 G-버스II'

군포시 버스정류장 노선 안내도 밑에는 조금 특별한 지도가 부착돼 있다. 바로 '군포시 독립운동역사 지도'다. 이 지도를 만든 이들은 다름 아닌 군포시 청소년들이다. (재)군포문화재단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체험행사인 '우리동네 G-버스II'에 참가해 독립운동역사 지도를 직접 만들고 군포시 버스정류장 곳곳에 부착했다.

글 노경희 사진 주효상

독립역사 담긴 곳곳 돌며 지도에 담아

'군포시 독립운동역사 지도'에는 한얼공원, 군포 평화의 소녀상, 군포 항일독립 만세운동 기념탑 등 군포의 다양한 독립운동 역사 공간의 위치와 관련 내용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또 안양, 안산, 의왕, 시흥, 김포 등 인근 지역의 독립운동역사도 자세히 나와 있어 시민들이 매일 정류장을 오가며 경기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당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만난 고민정(산본고2), 윤승희·박시연(금정중1) 양은 독립역사 지도 만들기 행사에서 배너 제작을 맡았다.

세 학생이 속한 '배너 제작팀'은 지난해 5월 기초 교육을 시작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군포시 한얼공원 현충탑 등 곳곳의 독립운동 역사유적지를 돌며 우리나라와 군포시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배웠다. 배너 제작팀으로 활동한 20여 명은 지도 안에 들어갈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정리했는데, 실제 제작된 지도에도 학생들이 만든 초안이 거의 그대로 사용됐을 정도다.

박시연 학생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정보를 찾아 이번 행사를 알게 돼 참여하게 됐다"며 "단순한 봉사가 아닌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고, 배운 지식을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독립역사 바로 알고, 지식 나눠 의미 두 배

'우리동네 G-버스II'는 지난 2015년 군포시와 보훈단체, 운수업체가 연계해 버스 내에 독립운동역사 지도를 부착한 '우리동네 G-버스I'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군포지역에서 운행 중인 버스에 독립운동 유적지를 넣은 노선도를 부착한 '우리동네 G-버스I'은 그해 국가보훈처로부터 나라사랑체험행사 우수상을 받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해당 버스 탑승객만 독립운동역사 지도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엔 많은 시민이 오가는 버스정류장에 지도를 걸기로 했다. 이렇게 부착된 지도는 2017년 2월 말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자진해서 철거한다고.

단작인 박시연 양과 함께 참여한 윤승희 양은 "특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당동, 군포역 등 학교 주변 정류장을 중심으로 100여 곳 정도 붙이려 다녔어요. 걷는 건 조금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니 재미있었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올해 고3이 되는 고민정 양은 "학업 때문에 활동을 더 할 수 없어 매우 아쉽다"며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이런 분야의 활동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후배들에게도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은 역사지도 부착 활동과 함께 군포시 독립운동역사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현재 정류장에 부착된 군포시 독립운동역사 지도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동네 G-버스II' 활동을 지도한 당동청소년문화의집 한송이 지도사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청소년이 잠시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데 의미가 있었다"며 "군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역사지도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당동청소년문화의집 390-1470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탐방



독립운동역사 지도 부착



군포시 한얼공원 현충탑 참배



구인·구직자들의 든든한 후원자 〈군포일자리센터〉

2010년 개소한 군포일자리센터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직자에게는 취업 초기 상담, 교육훈련 지원, 전문 상담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재를 구하는 기업에는 맞춤형 인력을 알선해 구인난 해소를 돕는다.

한편 2014년부터는 동 주민센터마다 배치된 직업상담사와 협력해 현장밀착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군포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기관과 실무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효과적인 구인·구직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경제과 390-0616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

- 구인·구직 신청서 접수 및 등록처리 (고용노동부work-net)
- 취업상담, 구인·구직 상호 알선 등을 통한 일자리 정보 및 취업컨설팅 제공
- 현장밀착지원 「동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운영
-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대·소규모 「채용박람회」 개최
- 여성,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계층별 취업훈련」 추진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

일자리센터 및 동주민센터 취업컨설팅 참여방법

- 이용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 구인·구직 대상 범위 : 관내 거주자 /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한 군포시 및 군포시 인근 소재 사업장

일자리센터 및 동 주민센터 취업상담 연락처 일자리센터

- 주소 :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504호 (금정동, 동영센터빌딩)
- 연락처 : 390-0347, 0227, 0613, 0614

동 주민센터 취업상담 연락처

동	전화번호
군포1동	390-4069
군포2동	390-4070
산본1동	390-4071
산본2동	390-4072
금정동	390-4073
재궁동	390-4074
오금동	390-4075
수리동	390-4076
궁내동	390-4077
광정동	390-4078
대야동	390-4079

기타 안내

-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팩스 : 031-397-0309)
- 구직 등록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구인 등록 유효기간은 2개월입니다.
- 구인·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자리센터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워크넷에 등록됩니다.



군포일자리센터 1월 추천 일자리



gyeonggi.work.go.kr/gunpo/main.do 390-0613

회사명	주소	사업 내용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임금	전화번호
(주)대림이앤씨	군포시 당정역로38번길 17(당정동)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경리사무원 1명	주5일 09:00~18:00	월급 130만원	031-451-8202
한국광성전자(주)	군포시 공단로 356-3(산본동)	기타 전자부품 제조	전자부품 조립검사자 6명	주5일 08:00~18:00	시급 6,030원	031-687-8559
두호전자	군포시 당정로28번길 27-1(당정동)	기타 장비 반도체 장비 인쇄업	전자부품 검사원 3명	평일 08:30~17:30 토요 격주 08:30~12:30	월급 140만원 (상여 200%)	031-429-4494
한국강화프라스틱	군포시 공단로 16(당정동)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5톤 트럭운전원 1명	주6일 08:00~18:00	연봉 2,160만원	031-452-5575
에이스테크놀로지	군포시 엘에스로 115번길 56(금정동)	기계장비 부품 가공	머시닝 센터 운영기사 2명	주5일 08:30~20:30/ 20:30~18:30 2교대	연봉 2,300만원	031-427-1595
성우산업	군포시 엘에스로182번길 26(산본동)	가구 제조업	가구제조 설치 및 수리원 2명	평일 08:30~17:30 토요 격주 08:30~12:30	월급 150만원	031-458-4074
보람요양원	군포시 고산로211번길 31, 4층(당정동, 성원프라자)	노인 복지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명	주6일 09:00~09:00 (하루 근무 후 이틀 휴무)	월급 140만원	031-477-5788
JM테크	군포시 산본로77번안길 16(당정동)	금형 가공	금속연마 가공 생산직 2명	주6일 08:00~18:00	연봉 2,400만원	031-459-0260
(주)아진화학	군포시 공단로 44(당정동)	합성수지 제조	회계 경리사원 1명	평일 09:00~19:00 토요 격주 09:00~13:00	연봉 2,300만원	031-458-2228
(주)엔토스	군포시 당정로 90, 나동 506-2호(당정동, 신라테크노빌)	유선통신장비 제조	경관조명 설계원 1명	주5일 09:00~18:00	연봉 2,500만원	031-477-8082

※ 2016년 12월 15일 기준 일자리 정보로 조기 구인 마감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구인구직 정보는 군포일자리센터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눈썰매 타고 싱싱! 얼음썰매 타고 생생!

초막골 생태공원 눈·얼음썰매장 개장

찬바람에 옷을 단단히 여미어도 동장군의 기세를 견딜 수 없다면 이한치한의 방법으로 겨울을 더욱 즐겁게 보내는 건 어떨까. 군포시는 초막골생태공원 내 초록마당 일부를 눈썰매장으로, 반디뜨락울 얼음썰매장으로 꾸미고 시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다양한 재미를 누릴 수 있는 썰매장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겨울 추억을 만들어보자.

글 편집실

한겨울 즐거움이 가득한 눈썰매장

가족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사시사철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군포시가 이번 겨울에도 군포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주민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겨울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막골생태공원 내 눈썰매장을 2016년 12월 23일 개장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초막골생태공원 터와 지역 내 체육시설 부지에서 한시적으로 눈썰매장을 운영해왔고, 이곳에는 항상 수만명씩 방문해 행복한 겨울 추억을 만들어 갔다.

오는 1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눈썰매장은 폭 15m, 길이 90m, 높이 10m 규모로 초막골생태공원 내 자연 경사가 있는 '초록마당(실개천이 흐르는 넓은 잔디밭)' 일대에 조성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공시설 전문 운영기관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이곳의 장비 대여 포함 이용 요금은 군포시민 3,500원(다른 지역주민 5,000원)이다.

시는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썰매장 운영을 위해 특수 바닥재를 활용해 썰매장을 조성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요원과 현장 응급처치 인력도 배치해 썰매장 이용 수칙을 교육하고, 응급의료실을 운영하는 등 만약의 안전사고에 민반의 대비를 했다.

또한, 군포경찰서·군포소방서·원광대병원·지샘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공원 주변도로의 교통 지도와 순찰 강화, 긴급출동 협조, 긴급의료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시는 초막골생태공원 내 반디뜨락에 얼음썰매장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한다. 썰매장비 100개를 무상 임대함으로써 눈썰매를 즐기러 온

시민들에게 얼음썰매까지 경험할 일거양득의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다. 운영시간은 눈·얼음썰매장이 모두 같으며, 두 시설 모두 초막골생태공원 내 야외 캠핑장(느티나무 야영장)과 인접해 있어 찾기가 쉽다.

초막골 눈·얼음썰매장 390-7662-3

사계절 자연놀이터 초막골생태공원

2016년 7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터를 주제로 조성 완료된 초막골생태공원의 여름은 물놀이장이 함께 했다. 지난해 7~8월 운영된 초막골 물놀이장에서는 하루 평균 520여명이 푸르른 자연 속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던 초막골 물놀이장은 2017년에도 돌아온다. 미처 몰랐거나 아쉽게 지난해 물놀이장을 놓쳤다면 올해 여름을 기억해 보자.

한편 생태공원 내 조성된 '느티나무 야영장(031-390-7666)'에서는 사계절 내내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일반 캠핑장(67면)과 글램핑장(16면)이 함께 조성돼 있으니 어떤 체험을 할지 선택만 하면 된다. 캠핑 고수들은 겨울을 즐긴다고 하는데, 초막골에서는 캠핑과 다채로운 생태체험, 눈·얼음썰매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 특별한 추

억을 만들려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안성맞춤이다.

또 이곳에서는 3년 다랭이논에서 도시농업 체험도 할 수 있고, 내년 봄부터는 생태전문 교육을 받은 해설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계절 내내 계절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가족 특화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

시는 조만간 초막골생태공원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다소 아쉬웠던 전용 정보 제공의 창이 마련되는 것이다. 사계절 내내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정이 넘쳐나는 풍경이 곳곳에서 목격되는 초막골생태공원. 가까운 곳에서 계절마다 특색 있는 정취와 사람의 따뜻함을 모두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생태공원과 390-4051-3

2017 초막골생태공원 눈·얼음썰매장

주소 군포시 초막골길 216

(자가용 이용자는 '군포시 산본동 946' 검색)

운영 2017년 1월 31일(화)까지 / 10:00~17:00

입장료 5,000원(1일, 1명) *군포시민: 3,500원

문의 390-7662-3

오는 길 [도보·대중교통] 마을버스 2, 3-1번, 시내버스 15번, 수리동 주민센터 하차 / [자가용] 반도시 능내터널 통과 후 진입, 수리고등학교 입구 차량 진입 불가



따뜻한 밥상 한 끼로 평생 인연 맺어요

마을기업 (주)좋은터의 '엄마품 멘토링' 사업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엄마 품'이다. 특히 엄마가 직접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생활은 자녀의 성격을 좌우하기도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진다.

군포시 마을기업인 '(주)좋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쁨지역아동센터(군포청소년지원네트워크·아이보듬네트워크)와 손잡고 엄마 품이 그리운 결손가정 아이들을 찾아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하는 '엄마품 멘토링' 사업을 시작했다.

글 노경희 사진 김성동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엄마 품'입니다



"좋은터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로 20여년 일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아이들에게는 부모, 특히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주)좋은터의 주요 사업인 '엄마친구네'는 권 대표가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시작했다. 일하는 엄마들, 워킹 맘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아침돌봄 ▲방과후돌봄 ▲토·휴일돌봄 등을 제공하고 있다.

4년째 이어진 사업이 호응을 얻어가던 중 (주)좋은터는 지난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인 '엄마품 멘토링' 사업에 참여했다. (사)한무리사랑나눔회 부설 기쁨지역아동센터, 군포청소년지원네트워크, 아이보듬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시작한 이 사업이야말로 그동안 권 대표 자신이 꿈꿔온 일생일대의 사업이라 느꼈다.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고, 또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운명처럼요."

(주)좋은터는 '엄마친구가 간다', '내가 꿈꾸는 생일파티', '우리동네 아침지킴이'를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엄마품 멘토링'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직접 방문해 따뜻한 밥상 앞에서 대화 나눠요



'엄마품 멘토링'은 군포시 드림스타트 및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해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엄마친구가 간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 한 부모가정·차상위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엄마 같은 멘토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음식을 매개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권 대표는 "멘토가 된 주부 선생님들은 군포 전역에서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지닌 분들"이라며 "이들은 멘토가 되기 전 돌봄활동가 양성교육을 완벽하게 거친 후 아이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멘토링 대상 아이들은 학교 교사나 지역아동센터,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의 실무자들이 추천한다. 권 대표는 "관심을 두어 잘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밥을 제때 챙겨먹지 못하거나 굶기 일쑤인 아이들이 생각 외로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녀의 말처럼 아이들에게 있어 '음식'은 단순히 먹을거리가 아니다. 부모의 사랑이자 관심, 그리고 존중받고 있다는 자신감이다. '엄마품 멘토링'은 음식을 매개로 하지만 멘토 선생님들은 음식보다도 엄마의 따

뜻한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 "멘토 선생님과 아이들은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생 인연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엄마품 멘토링'의 또 다른 사업 중 하나인 '내가 꿈꾸는 생일파티'는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관 등 지역기관의 실무자가 신청해 아이들의 생일 이벤트를 열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동네 아침지킴이'는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고 등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쳐 매회 50인분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9월까지 전개될 '엄마품 멘토링'에 대해 권연순 대표는 "양육의 경험을 가진 멘토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밥 한 끼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습관과 인성교육 등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며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위기의 순간 따뜻한 엄마 품을 기억하고 힘을 얻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주)좋은터 070-7517-6754

'엄마품 멘토링'이란?

군포시 마을기업 '좋은터'에서 교육·양성한 주부 멘토가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 식사를 차려주고 함께 밥을 먹으며 사랑을 전하는 사업

(주)좋은터 권연순 대표



마을기업 (주)좋은터 사무실



(주)좋은터 김순이 이사



당신의 보물을 도서관에 기증해주세요

군포시중앙도서관, 지역작가 또는 지역발전 기여자에 저서 기증 요청



군포시가 지역작가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작가들의 작품 기증을 받고 있다.

군포에 거주하고 있거나 군포 출신 작가, 군포가 주최하는 각종 강연이나 행사 등에 참여해 시민의 인문학 감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발전에 기여한 작가들의 도서를 한데 모아 지난해 11월 재개관한 중앙도서관 내에 지역작가 서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증을 받는 도서의 분야와 주제에는 제한이 없으며, 상시 기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자세한 기증 절차 등을 알고 싶은 작가들은 중앙도서관에 문의(390-8890, 8893)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기 중앙도서관장은 “군포와 인연이 큰 작가들의 저서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기증을 계기로 작가와의 연계를

구축해 독서문화운동을 더욱 활성화하려 한다”며 “많은 작가의 소중한 보물인 저서가 기증되면, 관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중앙도서관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여 간 시설 재배치 공사를 시행해 자료실 확장 및 출입문 철거, 이용자 편의를 우선한 서가 위치와 높이 조정, 1층 통합안내소로 도서 대출·반납 장소 일원화 등을 이뤄냈다.

또 서가에 책을 정리할 때 십진법 분류 외에도 주제별 표기를 병행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바꾸는 등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중앙도서관 390-8890

군포시 도서관의 1월 추천 도서

01

<아동>
이부자리 맨발체조



멋진 그림책을 만들어 온 이영경 작가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뿜 터지는 즐거운 맨발 체조법을 그림책으로 엮었다. 그림책도 보고 맨발 체조도 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02

<청소년>
단어로 읽는 5분 세계사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숨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역사를 어렵다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도 쉽고 친근하게 세계사 상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3

<성인>
다시, 책은 도끼다



<책은 도끼다>가 '왜 책을 읽느냐?'란 질문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면, 이 책은 '어떻게 책을 읽느냐?'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책이 주는 진짜 가치와 즐거움을 만날 수 있다.

이달의 도서관 행사

겨울방학특강

수강생 모집

모집 2016년 12월 26일(월)
10:00부터 31일(토) 24:00까지

신청 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or.kr) 온라인 접수, 정원초과 시 추첨

추첨 1월 3일(화) 15:00 전산 추첨

발표 1월 4일(수) 15:00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비용 무료(단,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자 부담)

문의 중앙도서관 390-8884

<밥이 되는 인문학>

지혜와 감성의 융합

일시 2016년 12월 29일(목) 14:00

장소 군포시청 대회의실

강사 한명기 교수
(명지대학교 사학과)

주제 G2시대, 병자호란을 돌아보다

문의 책읽는정책과 390-0903

리영희 선생 장서·유품, 군포중앙도서관에 등지

'사상의 은사'로 불린故 리영희(1929~2010) 선생의 기증 도서 전시관이 군포시중앙도서관에 마련됐다. 리영희 선생 추모 6주기를 앞두고, 부인 윤영자 씨가 부군의 생전 유품을 중앙도서관에 전달해 전용 전시관이 조성된 것이다.

기증품 중에는 리영희 선생의 손때가 묻은 돌보기와 만년필, 생전 마지막 출간된 <대화> 7쇄 본을 직접 빨간 연필로 수정한 흔적이 담긴 책도 있다. 또 사진들과 1989년 5월 30일 '<한겨레> 방북 취재 기획'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아내에게 보낸 옥중편지도 있다.

이 유품들은 중앙도서관의 기증 도서 전시관 재개관을 위해 군포시가 유족에게 부탁해 새로 찾아낸 것이 대부분이다. 중앙도서관은 유품은 따로 유리 상자에 넣어 도서 전시관에 전시 중이다.

이동도서관

미운영 안내

1월 2일(월)~1월 31일(화)까지 장서점 검 등으로 미운영합니다.

대출 도서는 가까운 공공도서관(중앙, 산본, 당동, 대야, 부곡, 어린이)에서 반납하시면 됩니다.

중앙도서관 390-8876

※ 더 많은 추천도서는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보도를 청소년 카페로 단장

군포 청소년들의 쉼터와 놀이터 '틴터 2호점' 개장



군포시가 두 번째 청소년 전용 카페를 조성하고, 최근 문을 열었다. 특히 이 시설은 이용객이 거의 없는 군포1동 주민센터(군포로 531) 인근 지하보도를 지난 8월부터 전면 개보수해 마련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유희 공간이 된 공공시설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여가를 즐기고, 책을 읽으며,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쉼터와 놀이터로 변모시킨 이번 시설의 정식 명칭은 '틴터 2호점'이다.

하루 이용 인원 300명이 넘을 정도로 지역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은 신본로데오거리 내 틴터를 확장한다는 의미와 거점별 청소년 전용 카페 확장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상징한다.

이에 따라 틴터 2호점에는 북카페, 동아리방, 인터넷

존, 간식당, 온돌휴게실, 카페,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등이 조성돼 있다.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틴터 2호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주말에는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은 휴무다.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2017년에는 부곡지구와 군포교육문화센터 내에 틴터 3,4호점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을 지속해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의 군포시 틴터 2호점의 사례가 도심에 방치되거나 폐쇄된 지하보도가 있는 다른 시·군에 전파돼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390-0145

군포나눔미학교 1월 프로그램

- 일시 1월 2일(월)~1월 31일(화)
- 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 대상 시민(강좌에 따라 수강 대상 제한 가능)
- 내용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재능나눔 문화공동체
- 수강료 강사료와 수강료 모두 무료(재료비 별도)
- 신청 네이버카페 군포나눔미학교
(http://cafe.naver.com/gpnanumi)
- 문의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390-1485

2017년 멘토멘티 Dream We 9기 참가자 모집

- 일시 1월 5일(목)~2월 7일(화) 09:00
- 대상 멘토멘티 Dream We 9기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 및 대학생
- 내용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학습, 진로, 문화, 탐방활동 등
- 인원 중·고등학생(멘티) 20명/대학생(멘토) 20명
- 문의 군포시청소년수련관 390-1425

<알프레드 히치콕> 뮤지컬 페스티벌

- 일시 1월 6일(금) 20:00 / 1월 7일(토) 16:00
- 관람시간 2시간 50분(인터미션 포함)
-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출연진 한세대 공연예술학과 학생
- 입장연령 8세 이상
- 입장료 전석 무료
- 공연내용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 <레베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뮤지컬

2017 신년음악회

- 일시 1월 14일(토) 19:00
- 관람시간 120분(인터미션 포함)
-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출연진 군포 프라이밍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피아노 백혜선, 바이올린 김봄소리
- 입장연령 8세 이상
- 입장료 전석 20,000원
- 공연내용 피아노의 여제 백혜선, 바이올린 신예 김봄소리와 함께하는 2017년 신년음악회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 일시 1월 21일(토)~1월 22일(일)
토요일 15:00, 19:00 / 일요일 14:00, 18:00
- 관람시간 140분(인터미션 포함)
-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출연진 문근영, 박정민, 손병호 등
- 입장연령 8세 이상
- 입장료 VIP석 60,000원/R석 50,000원/
S석 30,000원
- 공연내용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의 피날레를 장식할 불멸의 러브스토리

여담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가 있는 날

1월, 문화가 있는 날 ①

- 일시 1월 25일(수) 10:00~12:00
- 장소 여성회관 1층 여담도서관
- 내용 빙고게임과 함께하는 '선사시대'
- 신청 선착순 방문 신청
- 문의 군포시여성회관 390-3080

1월, 문화가 있는 날 ②

- 일시 1월 25일(수) 13:00~15:00
- 장소 여성회관 1층 여담도서관
- 내용 핸드드립커피, 문화를 내리다
- 신청 선착순 방문 신청
- 문의 군포시여성회관 390-3080

1월 G시네마 WINTER MOVIE '세계 영화감독 열전' 무료 상영



판타스틱 플래닛

1월 2일(월)
감독 르네 알루
장르 애니메이션
등급 12세 관람가
시간 73분



타임 마스터

1월 9일(월)
감독 르네 알루
장르 애니메이션
등급 전체 관람가
시간 78분



벨빌의 세 쌍둥이

1월 16일(월)
감독 실뱅 쇼메
장르 애니메이션
등급 12세 관람가
시간 75분



마담 트루스트의 비밀정원

1월 23일(월)
감독 실뱅 쇼메
장르 애니메이션
등급 전체 관람가
시간 106분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 ☎ (재)군포문화재단 390-3071~3

확 달라진 중앙도서관

장준영 | 광정동

군포시중앙도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개관했다. 중학생 때부터 줄곧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왔던 나에게 공사 기간이 남다르게 길게 느껴졌다. 설레는 마음으로, 지난 몇 년간 쌓아왔던 추억들을 회상하며 도서관을 다시 찾았다.

도서관이 현대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었지만, 사실 현대적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방문하기 전까지는 쉽게 상상할 수 없었다.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품어온 나에게 중앙도서관의 바뀐 풍경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책장의 높이가 낮아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다양한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낮은 책장으로 구성된 자료실은 어린이 도서 자료실 말고는 찾기 힘들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고 책장 사이의 공간이 충분히 떨어져 있어 예전보다 편안하고 거부감이 없었다.

그리고 자료실 사이사이에 마련된 테마 공간들도 새로웠다. 독립적인 인테리어로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느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 독서모임을 하거나 한담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정문의 출입문이었다. 입장이 예전보다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것이 책의 도난을 방지하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아직 중앙도서관의 바뀐 모습을 모르는 시민이 많은 것 같다.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중앙도서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 싶다.



정겨운 이웃사촌

이아영 | 군포2동

아파트에서 재활용 물품을 내놓고 있는데, 아기를 안은 채 재활용하는 분이 있기에, 나도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어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라 했고, 난 4개월 아들을 키운다고 했다.

같은 아기엄마라 친하게 지내보자고 했는데

같은 동, 같은 라인, 그것도 우리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세상에나.

그날로 바로 우리는 커피 마시며 수다 떨고

공동 육아를 시작하게 됐다.

나는 친절과 시택이 다 멀어 주위에

아는 분하나 없이 외로웠는데 이런 우연이!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요. 와니야, 지훈이랑

재미있고 신나게 잘~ 지내자! 두 아들 파이팅^^

정말 좋은 이웃사촌을 만나 행복하다!

내일이 또 기다려진다.



숨은그림찾기



새해맞이

정미자 | 군포2동

가을의 끝자락 나뭇잎 하나 달려있듯

12월의 달력 한 장 팔랑거린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기억조차 희미해져 가고

첫눈이 내리면 언제처럼 마음이 설렌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건강하게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다.

춧불집회와 대구 서문시장 방화사건 등

뉴스는 언제나 사건사고로 떠들썩한데

그래도 감사함을 느낀다.

각박한 세상, 스마트 시대를 달리는 기계 문명 속에서

우린 잃어져 가는 진실을 찾고 싶다.

죽은 듯 말라버린 담쟁이 잎은 봄에 싹을 틔우고

수만 개의 잎이 손을 잡고 결국 담을 넘는다.

작고 연약한 대한민국은 결코 작지 아니하다.

강인한 생명력과 협동심 2017 정유년 붉은 닭의 해,

행운과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본다.



<군포소식>이 시민 원고를 기다립니다.

제출방법 이메일 gunpo-city@nate.com, 매월 접수

원고분량 150자 이상 900자 이내(글자 10포인트 기준), 시는 자유

문의 군포시청 홍보실 390-0663

※ 원고가 게재되면 문화상품권(3만원) 지급, 사전 연락 없음

숨은그림 콜라병, 빵, 고래, 도넛, 툴립, 칫솔, 편지봉투

수수께끼 초막골생태공원 '눈-얼음OO장'은 1월 31일까지 운영된다. ☎ 10면 참조

정답제출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 표기 후 사진 촬영해 1월 21일까지,

군포시 페이스북(facebook.com/gunpocity)을 방문해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페이스북 공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보유 후 파기

동의함
동의 안함

“노래하며 봉사하니 인생은 즐거워”

노래동호회 <가릉빈가소리>

산본1동 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 들어서자 경쾌한 노랫가락이 여느 축제 못지않다. 40~60대 주부들이 분홍색 티를 맞춰 입고 손뼉 치며 흥겨워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어깨가 들썩인다. 이날 모인 이들은 산본1동·수리동·재궁동에 거주하는 주부들로 '가릉빈가소리' 동호회란 이름으로 한데 모였다.

글 노경희 사진 주효상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래에 담다

'가릉빈가소리' 동호회원들은 대부분 40~60대 주부들이다. 비슷한 연령대로 마음이 잘 맞아 한 번 만나면 노래연습 외에도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연습장에 오는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이곳에 오면 즐거운 마음이 커서 아프던 몸도 싹 낫는 기분이예요.”

김천기(66·산본1동) 씨는 전업주부로 지내다 6년 전 이곳을 알게 돼 인연을 맺었다. “워낙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지역 곳곳을 다니며 노래 공연 봉사를 하는 점이 끌렸다”고 전했다.

가릉빈가소리 동호회는 1년에 10차례 가까이 복지회관, 경로당, 요양원, 군부대 등을 다니며 공연 봉사를 하고 있다.

동호회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희(54·산본1동) 씨도 “지역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신다. 언제 또 오느냐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 있고 기쁘다”며 웃었다.

가릉빈가소리 기존 동호회원은 100여 명인데, 이중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30여명이 따로 모여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동호회 이름인 '가릉빈가'는 '천상에서 노래하는 새로 알려진 인도 고대 전설에 나오는 새 이름이다. '극락조'로도 불리는데, 설산(雪山)에 살며 무사카(Musikar)라고 불리는 악기를 연주한다. 천년을 사는 가릉빈가는 수명을 다해 죽을 때까지 각종 악곡을 연주하고 노래한다고 전해진다.

어르신 위한 공연 봉사 '정'을 전하다

노래의 즐거움을 아는 가릉빈가처럼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래로 전하고 싶은 '가릉빈가소리'의 회원들은 정해진 노래 연습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연습한 공연실력으로 늘푸른복지관, 군포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만난다. 특히 '포럼 전통과 미래와 협력해 노래공연과 시 낭송을 하는 '실버청춘극장' 코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05년 만들어진 '가릉빈가소리'는 10여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공연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동호회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즐거운 동호회 분위기처럼 회원을 모집할 때도 인기가 매우 높다. 회원 모집

은 상시로 하는데, 가입 신청 문의가 늘 끊이지 않는다. 동호회에서 노래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는 오해균 강사는 “열심히 연습하는 주부들을 보면 한 곡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군포시 생동감동아리 발표회 등에도 참가하고 있다. 주부들이 하나가 돼 즐기는 모습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군포문화재단의 생동감 동아리 발표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아울러 오 강사는 “올해엔 산본1동, 수리동, 재궁동 등 3곳 회원들이 연합해 콘서트를 열 계획을 세웠다”며 “적극적인 회원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릉빈가소리 동호회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생활문화동호회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군포시의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군포생동감'(군포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함께 느껴요!)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시민은 군포문화재단(031-390-3071~3)에 문의하면 된다.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 확대 안내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타 지역 자치단체의 화장장 이용 시 차별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받는 군포시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2017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행일 2017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지급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30만원 지급
※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 비용 지급

신청방법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화장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

지급방법 신청인(연고자)의 통장 계좌에 입금

지급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문의 위생과 390-0891, 0165

군포사랑장학회, 시민 기탁금 2016년 1억원 넘다

군포시와 군포사랑장학회는 지난해 12월 5일 몰드서비스코리아(주)가 장학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 한 해 동안 시민사회와 지역 기업 등이 출연한 군포사랑장학금은 1억원을 훌쩍 넘어 1억3천만 원에 달한다.

2007년 군포사랑장학회가 설립된 이후 각계각층에서 출연한 누적 장학금 총액은 약 23억8천만원이다. 장학회는 설립 당시 시 출연금과 시민사회 출연금을 합한 기금을 활용해 최근까지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포함해 총 1천828명에게 25억3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책읽는정책과 390-0785

독감 환자 급증하는 1월 감기와 독감은 달라요~



일반적으로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influenza)'는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호흡기질환이다. 특히 초·중·고학생 연령(7~18세)에서 발병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___독감(인플루엔자)이란?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며, 계절 구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매년 겨울, 특히 1월에 유행한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노인이나 소아 또는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걸리면 사망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병률이 높아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독감은 원인균과 병의 경과가 달라 일반 감기와는 구별하고 있다.

___원인은?

독감 바이러스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가 원인 병원체이다. 독감 바이러스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B·C형 세 가지가 존재하지만,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A형과 B형이다. 또, B형은 증상이 약하고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하지만, A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___증상은?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된다. 환자가 느끼는 이러한 증상은 매우 다양해서 감기와 비슷하게 발열이 없는 호흡기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전형적으로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___치료는?

인플루엔자의 치료는 항바이러스제 및 항생제 요법과 기타 대증 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노인, 영유아 및 만성내과질환 환자의 인플루엔자는 폐렴 등 중증 합병증 발생, 병원 입원 및 사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매우 중요하다.

___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면 감기도 예방될까?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감기와는 다른 병이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감기와 달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바이러스 중 일부 항원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인 감기에는 효과가 없고, 또한 인플루엔자의 아형이 다른 경우에도 효과가 없다.

노인불소도포 · 스케일링 사업

산본보건지소는 잇몸질환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 대상으로 스케일링을 실시해 잇몸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치근우식(충치) 및 시린이 방지를 위한 불소도포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간 1월~12월(13:00~15:00)

대상 군포시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무료)

장소 산본보건지소 구강보건실

방법 예약제 운영(전화 및 방문예약)

내용 스케일링, 불소도포, 잇솔질 및 구강관리 교육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27, 8968

치아 홈메우기 사업

산본보건지소는 치아우식증(충치)이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실런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중

대상 관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치아 치아우식증이 발생하기 전의 제1, 제2 대구치(8개)

시술비 무료

신청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시술 사전예약
 www.gunpohealth.or.kr → 회원가입 → 구강보건예약 → 예약일자에 보건소 방문, 시술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27, 8968

치매 선별검사(기억력 검사)

일시 매일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장소 산본보건지소 치매상담실

방법 1차 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 소득 기준 확인 후 병원 정밀검사 의뢰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84

치매 예방교육(치매 조기발견 교육)

일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월 4일(수) 10:00~11:30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장소 산본보건지소 대교육실

내용 치매의 정의, 원인, 예방활동 등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76

치매 진단 후 교육

일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월 18일(수) 10:00~11:30

대상 신규 치매 진단 가족

장소 산본보건지소 대교육실

내용 치매환자 돌봄의 중요성 (치매에 대한 이해와 문제행동 대처법 등)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75

간편하고 든든한 아침 한 끼 우유 감자수프

추운 겨울, 든든한 아침 한 끼는 따뜻한 하루를 선사한다. 게다가 만들기까지 간편하다면 금상첨화! 우유와 감자의 다양한 영양소가 고루 담겨 있는 우유 감자수프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해보자.



재료(4인분 기준) - 감자 1개, 우유 2컵, 생수 1컵, 올리브유 1큰술, 아몬드 슬라이드(약간), 소금(약간), 흰 후춧가루(약간)

조리방법

- ①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찬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생수와 함께 믹서에 곱게 간다.
- ②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①의 감자를 넣어 볶는다.
- ③ 우유를 조금씩 넣어 멍을 없이 저으며 중간 불에서 5분 정도 끓인다.
- ④ 부드러운 감자 우유수프가 완성되면 아몬드 슬라이스를 넣어 소금과 흰 후춧가루로 간을 한다.

TIP 아몬드, 땅콩, 호두 등의 견과류를 첨가하면 씹히는 고소함이 더해져 더욱 맛이 좋다.